

최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이하 신경분리)'에 관해 농림부, 농협, 농민단체들이 주목하고 있다. 연구의뢰를 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이하 금융연구원)이 지난 연말 최종보고서(안)을 농림부에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가 아니라 현재 농협중앙회의 조직체계를 완전히 뒤바꿔놓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신경분리 논의의 배경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농민조합원의 피땀으로 만들어졌다. 정부가 주도했던 하향식 협동조합이지만, 농민조합원들은 수확할 때마다 쌀 몇 가마니씩 출자하면서 만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온갖 권력과 특혜를 누렸지만 그 혜택은 조금도 농민조합원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비판은 협동조합 본연의 목적으로서 농민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에 집중해야 할 협동조합이 안전한 수익성 위주의 신용사업에만 치중함으로써 협동조합의 목적과 존재가치가 상실

되었다는 것에 집중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갈수록 농업생산이 전문화되면서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 등 새로운 체제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현재의 종합농협체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 신경분리의 의미

신경분리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단순히 신용사업을 중앙회로부터 분리하여 중앙회의 자회사로 하는 것을 신경분리로 보는 경우가 있다. 또, 농민단체나 학계에서 주로 제기해 왔던 것으로써 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특수은행 형태로 하고, 경제사업은 품목별 경제사업연합회로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예를 들면, 94년 농발위의 최종보고서에는 '농·수·축·임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완전독립사업부제에서 시작하여 별도의 협동조합은행(또는 금고)으로 독립시킴'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후 구성된 정부의 협동조합발전기획단과 농정발전기획단에서는 신용·경제사업을 점진적으로 자회사방식으로 분리하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

다. 정부의 시각이 단순히 중앙회의 자회사화 하는 것을 신경분리로 본다면, 오히려 농발위 최종 보고서는 완전독립사업부제 이후라 하더라도 특수은행화 하는 것을 신경분리로 본 것이다.

참고로, 현재 농협중앙회의 체제를 알아보자. 농협중앙회의 체제는 독립사업부제라고 불리고 있다. 독립사업부제란 동일조직 내에 사업부분별로 전문경영인을 두어 해당부분의 경영이익을 책임담당 하도록 하는 분권적 조직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대표를 중심으로 소관별로 인사, 조직, 예산, 회계, 재산 등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농협중앙회는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신용대표이사 등이 각각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농협법에 의해 각각 사업전담대표이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독립 회계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 금융연구원의 최종보고서(안), 농림부에 제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와 관련하여 농협법 부칙 1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농림부장관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즉, 농림부는 2002년 6월까지 국회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늦어도 2004년 6월까지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은

작년 12월 17일 최종보고서(안)을 농림부에 제출하였으며, 12월 27일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농민조합원이나 농민단체가 금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수용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아있다.

금융연구원은 2000년 12월 농림부로부터 신경분리에 관한 연구용역 담당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유는 10명의 금융관련 연구전문인력을 보유한 점과 지난 96년 농협중앙회 사업체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용역을 맡자마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연구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자고 제의하였다. 농경연으로부터 즉각 거절당했지만, 이는 금융연구원 스스로 협동조합 경제사업에 대한 전문연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금융연구원의 보고서는 신용사업 중심의 시각으로 협동조합이 가진 고유의 목적보다는



▲ 지난 6월 27일 한농연중앙연합회에서 개최한 협동조합개혁 대토론회.

경경제의 입장에서 신경분리 불가론을 제기하거나, 단계적 분리론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은 연구 시작부터 연구방향에 대해서 농민단체의 비판에 직면하였으며, 1년여간의 연구조사 기간동안 농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또 한번 비판을 맞고 있다.

###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 해설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의 신경분리는 필요하지만 여러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3단계로 신경분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신경분리의 각 단계별 추진방안이다.

- 1단계 : 사업부제 강화를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제·신용사업의 흑자를 실현하여 2단계 신·경분리를 준비
- 2단계 : 경제·신용사업이 흑자를 실현할 수 있게 되면 경제·신용사업연합회를 설립하여 중앙회 차원의 신·경분리를 추진
- 3단계 : 조합의 신·경분리, 고객 및 지역중시 경영이념 및 법체계 확립 등 농협의 장기비전을 완성.(우측 도표 참조)

단계별로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있지만, 가장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1단계다. 금융연구원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을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각각 구조적으로 흑자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점으로 하였다. 따라서, 자본금 확충방안, 지도사업비 조달방안, 경제사업 독자생존방안 등 여

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신경분리는 어렵게 된다.

한가지 예로 경제사업의 독자적 생존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금융연구원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수익성이 열악하게 나타난 것은 지도사업과 정책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연구원의 분석대로라면 지도사업이나 정책사업을 경제사업에서 분리하지 않는 한 신경분리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 신용·경제사업 겸영 체제로 인한 신용사업 중심이 경제사업의 발전을 막았다는 것이 협동조합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 결과인데, 오히려 구조적으로 이익을 볼 때까지 신경분리가 안 된다는 것은 주체가 뒤바뀐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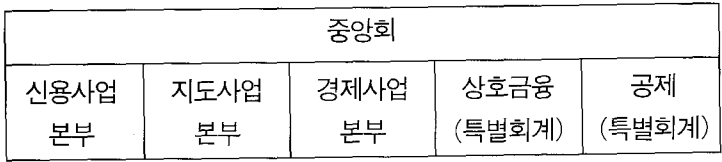
따라서, 금융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농협중앙회가 주장해오고 있는 신용사업 강화와 독립사업 부제 유지 등에 충실해 있으며, 금융적 시각에서 얼마나 신용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에 연구결과가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신경분리문제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지난 90년 초부터 10여년이 넘게 논쟁거리였지만 신경분리를 둘러싸고 여러 입장들이 존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사업체제, 조직체계를 완전히 개편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수록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 한농연은 현재 1월말 시행된 시군회장 교육을 시작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각급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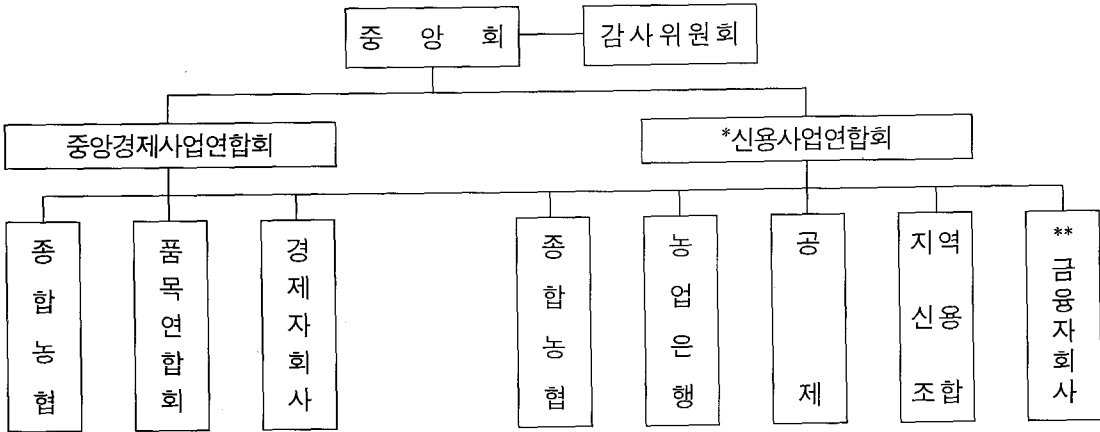
협동조합개혁은 400만 농민, 특히 한농연의 단 일한 의견과 단결된 힘에서 나온다. 한농연은 협동조합개혁의 선두에서 400만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한농연**

◆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신경분리의 단계별 추진방안

**1단계 : 사업부제 강화**



**2단계 : 경제·신용사업 연합회 설립**



**3단계 : 장기버전의 완성**

